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100병상 이상 병원 비상벨 설치 ...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허용이 안 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치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 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었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항목을 확대했다.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크기가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를 삭제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시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의 본인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서 인감증서를 삭제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인사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김현주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8월 12일자로 단행했다.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인사과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관, 인구가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주혜진 기자 hjjoo@

2019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면허신고센터 ☎1644-1755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생명나눔 포토존 인증샷 ... 기증서약 '나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홍보 전시관' 운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명나눔 홍보 전시관'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해피인사이드 전시회'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생명나눔 홍보 전시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숙한 10~20대가 여러 형태의 생명나눔 촬영구역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나눔 홍보 전시관은 자신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인체조직 모형을 촬영해 볼 수 있는 '생명이름' 포토존과 이식대기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명나눔 플라워 버킷 챌린지' 포토존으로 구성돼 있다.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도 한다 접수대'도 마련해 전시회 관람자들이 바로 장기기증서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회장에 '살롱문화관'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유명인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인식 개선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회 기간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기증희망등록증 사진 게시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계정을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매달 100명에게 해피인사이드 전시회 입장권을 증정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7000여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100만명당 9.95명으로 스페인 46.9명, 미국 31.96명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서약률은 2018년 기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 팩스(02-2628-3629),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2019년 9월 교육 개척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9월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심전도의 이해 및 간호	만성질환 케어코디네이터 전담간호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환자안전과 간호	임상응급요법의 이해와 적용 (1차)	임상응급요법의 이해와 적용 (2차)
일시	9월 5일 (목)	9월 6일(금) ~9월 7일(토)	9월 18일 (수)	9월 19일(목) ~9월 20일(금)	9월 26일(목) ~9월 27일(금)
인원	각 80명			각 60명	
장소	KNA연수원				
신청기간	2019년 8월 6일(화)~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및 결제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온라인 누리집 주소 등을 담았다.

약 4000부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

여성 1인 가구 증가 ... 60세 이상이 절반 차지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5.7년으로 남성보다 6.0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추이=2019년 여성 인구는 2579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 5170만9000명 중 49.9%를 차지했다. 남성 인구는 2591만3000명으로 여성보다 11만7000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까지는 남성 인구가,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50~59세가 1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15.8%), 30~39세(13.6%), 20~29세(12.7%), 60~69세(12.1%), 10~19세(9.2%), 0~9세(7.9%), 70~79세(7.5%), 80세 이상(4.6%) 순이었다.

성비(여성 100당 남성 수)는 100.5명이었다. 특히 20대 성비는 113.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80세 이상은 48.5명으로 가장 낮았다.

△1인 가구=2019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90만7000가구로,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여성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46.1%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29.9%),

60대(16.2%), 20대(16.1%) 순으로 많았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31.2%로 2000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 중 가구주가 미혼 여성인 가구는 148만7000가구로 2000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기대수명=2017년 출생 여성의 기대수명은 85.7년으로 전년(84.5년) 대비 0.3년 증가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9.7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0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령별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길었다. 10세(여성 76.0년·남성 70.0년), 20세(66.1년·60.1년), 30세(56.2년·50.4년), 40세(46.5년·40.7년), 50세(36.8년·31.4년), 60세(27.4년·22.8년), 70세(18.3년·14.7년), 80세(10.2년·8.1년), 90세(4.8년·4.0년), 100세 이상(2.3년·2.0년).

△사망원인=2017년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사망자 수는 511.4명으로 전년보다 10.0명 증가했다. 여성의 사망원인 1위는 암(116.9명)이었고, 다음으로 심장질환(61.8명), 뇌혈관질환(46.1명), 폐렴(36.3명) 순이었다.

남성 사망자 수는 603.4명으로 여성보다 92명 더 많았다. 남성의 사망원인 1위는 암(191.1명)이었고, 다음으로 심장질환(58.6명), 뇌혈관질환(42.7명), 폐렴(39.4명) 순이었다.

이진숙 기자 jslee@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혜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대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특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상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의료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2296-7677	보건의료사회 (02) 527-339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보혈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간간호사회 (02) 716-903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